

전인권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를 아시나요



5일 박태진 DJ가 자신의 작업실 '판·소리'에서 그동안 수집한 LP판 1만장과 수록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년간 LP판 1만장 모은 박태진 DJ

19살때부터 DJ생활...광주DJ협회 결성도 음악작업실 벽면 가득 추억의 음반 빼곡 을 희귀 LP판 전시 계획...음악 봉사도

“전인권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를 아시나요?”
 ‘이등병의 편지’는 흔히 김광석의 노래로 알고 있다. 박태진(49) DJ는 이 노래를 1990년 5월 한겨레신문에서 발매한 ‘겨레의 노래’에 수록된 곡으로 전인권이 처음 불렀다고 소개했다.
 약 30년간 1만장의 LP판을 모으며 노래 속에 숨은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려주는 박 DJ를 5일 오후 그의 음악작업실에서 만났다. ‘판·소리’라 이름 붙은 그의 음악작업실에 들어서면 33㎡(10평)의 공간에 벽면 가득 들어찬 LP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마란츠 SC9’ 튜너, AR타입이블, ‘제이벨S 3100’ 앰프 등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각종 장비들도 보인다. 마치 1970~80년대 음악다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곳은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인들과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장소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꾸렸죠. 개인 작업실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아끼고 옛 추억을 찾으시려는 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최근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며 ‘세월이 가면’, ‘청춘’, ‘걱정말아요 그대’ 등 7080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의 음악작업실에서는 아날로그 원곡의 감흥을 느낄 수 있다. 희귀음반도 많다. 조용필이 무명시절 기타리스트로 참여했던 ‘김대환과 김트리오 악단’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눈에 띈다. 앨범 표지 사진에서 기타를 든 조용필의 모습이 사뭇 어색하다. 조용필은 이 앨범 이후 보컬로 전환하며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또 1961년 발매한 신중현의 첫 작곡 앨범과 사망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김광석 4집 등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앨범은 콜렉터들 사이에서 수백만원의 호가하는 등 지금은 국내에서 찾기 힘든 희귀 앨범으로 꼽힌다.



신중현의 첫 작곡 앨범.



1950년대 발매된 SP 레코드판.



조용필이 기타리스트로 참여한 ‘김대환과 김트리오 악단’의 20주년 기념앨범.

“1994년도에 발매된 김광석 4집은 그의 앨범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앨범이 발매된 때는 막 CD가 나오기 시작하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되던 시기였죠. 사람들이 CD를 많이 구입해 LP판은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사려면 50만원은 줘야돼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LP판을 찾는 박DJ는 신기하게도 수많은 판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한번에 짚어낸다. 수많은 LP판을 틈틈이 붙여 올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위치를 습득한 모습에서 LP와 음악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영양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적부터 라디오를 들으며 음악을 좋아했고 DJ에 대한 꿈을 키웠다.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18살 때 광주로 나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한정 두장 LP판을 모았다.

그의 첫 DJ생활은 19살 때 시작됐다. 전남대 후문 ‘코아다방’에서 활동을 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DJ들의 메카로 불리던 충장로 1가의 ‘프리타임’으로 옮겼다. 그의 실력을 눈여겨 본 KBS 김용환 DJ가 스카우트한 것이다.

대학을 다니며 DJ활동을 계속했고 조선대 방송국 PD로도 활동했다. 대학 3학년 때는 광전동 옛 송원대학교 인근에서 레코드숍 ‘아르페지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주광DJ 등과 함께 광주DJ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2009년 두암동에 광주DJ협회 전문 음악감상실 1호점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박태진의 뮤직북’을 차렸다. 생계 때문에 낮에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밤이면 본업인 DJ로 돌아가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4년 문을 닫았다. 박DJ는 “자본주의 때문에 망했다”라고 표현했다. 교통방송에서 1년간 진행했던 ‘남만이 있는 곳’이라는 LP음악코너도 이때쯤 그만뒀다.

살에 지친 그가 쉬고 있을 때 10년지기 친구였던 조각가 고근호 씨가 지금의 작업실을 만들도록 도와줬다.

“지나해 초 근호가 다시 DJ작업실을 만들어보라고 권유하며 같이 장소를 보러 나왔어요. 계속 음악활동을 이어갈 생각이예요. 올해 희귀 LP판 전시전도 열고 때가 되면 음악감상실도 다시 운영할 생각이예요. 사람들도 듣고 싶어요. 자동차에 장비를 설치해 양로 원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가 음악 봉사를 할 계획이예요.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기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0억 공모사업 시작

5개 사업 160개단체 지원...‘지원 휴식년제’ 첫 도입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2016년 ‘지역협력형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역량 있는 신진 예술단체를 발굴을 위해 ‘지원 휴식년제’를 전격 도입했다. 사업 성격에 따라 개인은 1년, 단체는 2년, 또는 4년 연속지원을 받은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에 한해 휴지기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4일 시작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롯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등 5개 사업에 약 20억원, 160개 단체를 지원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6억 7200만원)은 올해부터 공공공연장이 주체가 되어 1개~3개의 공연단체와 상주 협약을 맺은 후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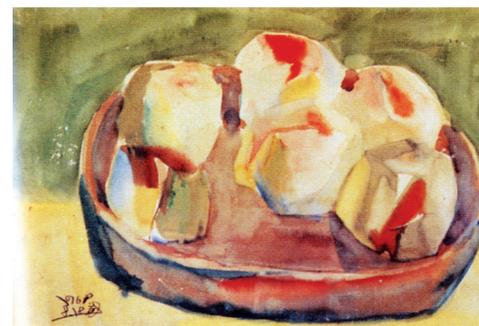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3억원)은 예술인이 일정기간 거주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1억원)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 등 창작과 글로벌 역량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4억 5000만원)은 광주의 특색과 역사가 살아있는 특정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7억2400만원)은 문학 등 8개 장르에서 개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또는 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1일과 15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670-7442~5.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옥계부터 오지호까지...돌아보다

보성백민미술관 내달 25일까지 ‘작고작가’展



배동신 작 '정물'

조선시대 예조판서를 지낸 옥계 노진(1518~1578)의 글씨부터 백범 김구(1876~1949), 의재 허백련(1891~1977), 오지호(1905~1982),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균(1952~2015) 작품까지 시대별 작고작가들의 작품 130여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보성군립백민미술관(관장 조규일)이 2월25일까지 소장 작고작가전 ‘돌아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93년 개관한 백민미술관이 그동안 기증 받은 소장품 약 770점 중 유명을 달리한 작가들의 작품만 따로 모아 선보이는 자리다. 또 선사시대 유물인 마제석기 돌칼, 고려~조선시대 청자와 백자, 제작 연도와 작가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 불화, 목판화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 제정러시아의

성화(聖畵), 잉카 목기와 러시아, 일본 등 외국 작품도 전시된다. 이중 김구의 서예작품은 일제 강점기 보성을 근거로면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일 관장과 고(故) 오지호 화백과의 인연도 소개한다. 오지호 화백은 조관장의 스승으로 백민(百民)이라는 호를 지어졌으며 수십년간 편지를 교류했다. 당시 편지 봉투, 전시회 서문 등도 작품과 함께 볼 수 있다.

또 배동신(1920~2008) 화백의 작품도 조관장의 인연으로 기증받았다. 지난 1960년대 조관장이 광주에서 처음 개인전을 가질 때 배 화백은 자신의 작품과 조관장의 작품을 맞추어주고 찾아왔고 이후 형과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문의 061-853-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성천소설집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부족함이 가득하다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이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불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확실히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나간 작가의 중심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나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대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7(하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이메일 simmian21@hanmail.net munhakdle@hanmail.net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